



“불교문화 저작권 보호 비상”

조계종 문화부 세미나 열어 ‘인식확산’

인터넷 누리꾼에게 유명한 보살이 있다. 누리꾼들은 지장보살을 몰라도 ‘지름보살’은 안다. 지장보살을 희화화한 지름보살은 한 손에는 신용카드를, 다른 손에는 최신헤드폰을 들고 “연체가 대수냐, 있을 때 질러라”고 말한다. ‘지름신’의 하나로 ‘뽀뽀’ (사고 싶은 충동을 유발하는 행위)를 위해 웃음거리로 표현된 지름보살에게 육도중생을 구원하는 지장보살의 원은 보이지 않는다.

지름보살은 불교문화가 제작자의 도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예다.

지름보살이 ‘지름보살’로 문갑
불교문화 지적재산은 유형과 무형으로 나뉜다. 유형적 불교문화는 불교건축물이나 불상, 불화 등이며, 무형적 불교문화는 불교 음악·무용 등이다.

디지털시대를 맞아 교계 관계자들은 문화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정작 교계의 불교문화 지적재산에 관한 인식은 결핍에 달렸다.

이웃종교인 개신교는 종교음악이 대중 속에 깊숙이 침투해 있다. S통신사가 운영하는 음악사이트 ‘멜론’에는 기독교 음악장르인 CCM이 독립

장르로 분류돼 있기도 하다. ‘퀴비디스’ ‘벤허’ 등 명작으로 꼽히는 영화도 많다. 카탈락은 ‘신부수업’ 등 다양한 영화와 음악으로 고상하고 힘 있는 종교로 자리매김했고, 젊은 신도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성공을 거뒀다. 그동안의 문화 지적재산 정책이 일관적이었다.

이에 비해 불교음악은 국악 장르에 포함됐고, 종단차원 찬불가 총계도 미비하다. 영화로는 ‘달마야 놀자’ 등 몇몇 작품을 제외하고는 흥행작이 없는 데다 불교를 교묘하게 폄하하는 내용이 담긴 작품들이 창작의 자유를 빌미로 난무하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불교문화 지적재산의 가치와 활용에 관한 교계 인식 부족이 원인”이라며, “지적재산권에 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포교적 활용 반드시 감안돼야
불교문화 지적재산권은 현재 제작권 개념에만 치중해 있다. 권리행사 주체도 불교계가 아닌 일반업자다. 얼마 전 A사찰 합창단은 찬불가 악보를 출판한 출판사로부터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다행히 저작권협회가 ‘합창단이 악보를 복사해 사용한 것은 비영리적 목적으로

‘사적복제’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일단락되기는 했다.

김모씨는 얼마 전 모스님 법문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가 곤욕을 치렀다. 출판사측이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김씨에게 합의금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김형진 변호사(법무법인 정세)는 “(포교에 반하는 권리 행사를 막으려 면) 사찰이나 종단 등이 문화콘텐츠 제작자로 참여하거나 사용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질 높은 디지털콘텐츠 보급해야
전문가들은 문화산업의 핵심은 콘텐츠며, 선점과 가량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정부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문화콘텐츠진흥원을 두고 문화원형사업을 진행 중이다.

불교소재 문화원형사업은 얼마나 될까?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 등 10여개 단체가 사업에 공모해 성보문화재와 불교문화를 소재로 동영상, 게임,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가 개발돼 활용 중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불교소재 콘텐츠의 완성도가 떨어진다. 콘텐츠 제작에 불교계가 배제되고 있는 것도 문제였다.

광주문화산업진흥원이 2006년 지

정공모해 제작한 운주사 관련 디지털 콘텐츠는 운주사 사전 허락이나 내용 관리, 사후 사용에 대한 아무런 협의 없이 진행됐다.

조은정 교수(서울벤처대학원대학)는 “운주사 콘텐츠 일부는 내용도 빈약하고 완성도도 낮다. 함량미달 콘텐츠는 차후 상품화시 불교문화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경고했다.

#종단이 비전 갖춘 정책 내놔야
조계종이 본격적으로 불교문화 지적재산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근래의 일이다.

2007년 12월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종훈은 <불교문화 지적재산권의 현황과 분석>을 출간했다. 2008년 10월 2일에는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부장 수경)가 ‘불교문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에서 전문가들은 ▲지적 재산 현황 파악 ▲불교문화의 산업화 등을 주장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콘텐츠산업실용을 두고 콘텐츠 정책, 미디어 정책, 저작권 정책을 각각 분리·운영하는 것처럼 조계종 문화부 직제부터 전략적으로 확장·개편해야 올바른 정책과 투자가 이어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교계의 불교문화 지적재산권 관심이 디지털시대 보편보살과 호 문제였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아름다운 동행 조계종은 9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기부문화 확산과 나눔 실천을 위한 불교계 최초의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의 창립식을 개최했다. 법인 이사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교육원장 청화 스님, 포교원장 혜충 스님,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창립식에서 지관 스님은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으로 소외된 이웃과 사회공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은 창립식에서 신복사 주지 세영 스님을 상임이사로 위촉했으며, 현재 8억 여원의 기부금을 모금했다. 박재원 기자

“종단 화합위해 내년 3월이전 사퇴”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스님, “징계자 복원 등 노력”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사진)이 종단화합과 발전을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

운산 스님은 10월 1일 인사동 한식집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늦어도 내년 3월 30일까지 한국불교전통문화진흥관 불사의 마무리와 조계종과의 신촌 봉인사 문제를 해결하고 물러나겠으며, 그 전이라도 두 현안이 해결되면 즉시 퇴임하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자에 대한 보우승가회의 잇단 비리 의혹 제기과 순천 선암사 문제 등으로 이전투구식 폭로와 종단분열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진정 종단의 갈등과 분열을 막고 화합을 통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사임을 결심했다”고 사퇴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별

방대한 도산 스님 등 징계자와 각종 의혹을 제기한 보우승가회에 대한 제재조치를 중단하고 권리를 원상회복시키겠다”며 화합을 위한 후속 조치 계획을 밝혔다.

9월 30일 총무원에서 열린 ‘신주 화악 봉행위원회’ 회의에서 원로의원과 중앙 및 지방총무기관 소임자, 중앙총회 의원 등 원로·중진스님들에게 사퇴 의사를 공식 발표한 운산 스님은 조만간 해초 종정스님과 원로회의에 사퇴의 배경과 진의를 보고할 예정이다.

운산 스님은 지난 1974년 34세로 최연소 총무원 총무부장에 임명된 이후, 2002년부터 제22·23대 총무원장으로 연임해 35년여 동안 태고종의 주요 총무행정을 맡아왔다.



2009년 11월, 임기가 만료되는 스님은 내년 3월 임기를 8개월 앞당겨 사퇴한 이후 약화된 건강을 추스르고 친중사 불사와 인재양성에 매진할 계획이다. 김성우 기자

社 告

“공공기관에 현대불교를 보냅시다”

■ 종교편향 근절 호법캠페인

본사에서는 국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정부출연기관, 특수법인, 각종 학교 등 공공기관에 현대불교 호법 캠페인을 벌입니다. 한 장의 ‘호법보살’인 현대불교는 불교문화를 제대로 알리는 포교기능과 종교편향 및 해탈 행위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해 불교를 옹호하고 불법을 널리 전하는 최일선의 포교사가 될 것입니다.

☞차법보시 환경부 주요 부서에 발송
독자께서 보내주시는 법보시 후원금에 따라 환경부 장관실, 차관실, 정관정책보좌관실, 대변인실,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과, 자연보전과, 자원순환과 등 주요부서에 본지 700호부터 발송합니다.

법보시 대상: 청와대 각부서(국회의원실/정부(15부 2처)/경찰청/지방자치단체/각급 교육기관(전국)공공도서관/군부대

법보시 후원 안내: 문의의 대표(02)2004-8200
-법보시는 1구좌 1,000원 이상 -계좌: 국민은행 038-25-0008-365(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www.buddhabook.co.kr 02_3672_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순 황산철 원액 100%” **청다향**
부처님 제일공양 한국최초 식물과학 연구분석(동국대) 51가지 향기원명
덕유산 청다향 문의 055)941-1083

불기 최초순수에 희석하여 사용하는 관불·관육 전용 **관불수향**
울곧은 마음으로 참된 공양물만을 만드는 **능인향당** 향·조각·공양물
본사 02)3663-6777 직영매장 (조계사 맞은편 02-730-6888)

불기2552(2008)년도 동안거 대중결계와 포살 시행 공고

대한불교조계종은 「포살 및 결계에 관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불기 2552(2008)년도 동안거 대중결계와 포살』 시행을 공고하오니 본종 모든 스님들은 결계신고와 포살 참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1. 결계신고**
 - 신 고 일: 불기 2552(2008)년 11월 3일(월, 음력 10.6) ~ 11월 12일(수, 음력 10.15)
 - 신고장소: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 (다만 공할주지는 반드시 소속 교구본사에 신고함.)
 - 신고방법
 - 본종 소속 사찰의 주지는 <시행령 별첨 서식1> 결계현황보고서(사찰용, 단체용)에 사찰의 소임자 및 거주대중을 기입하여 직접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의 방법으로 교구본사에 결계신고를 함.
 - 본종 관할 하에 기관 및 단체(선학원, 대각회 등 법인소속 사찰 포함)의 거주승과 기타 수행처에서 거주하고 있는 스님은 <시행령 별첨 서식2>의 결계신고서(개인용)를 작성하여 결계 일 전 10일부터 결계 일까지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에 직접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의 방법으로 결계신고를 함.
 - 동국대학교 및 중앙승가대학교의 소임자 및 학인들은 <시행령 별첨 서식3>의 결계현황보고서(사찰용, 단체용)를 작성하여 결계 일 전 10일부터 결계 일까지 직접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의 방법으로 교육원에 결계신고를 함.
 - 6월 이상의 해외 연수와 유학, 해외 포교 활동을 목적으로 출국하는 스님과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출국한 스님은 <시행령 별첨 서식3>의 해외 출국(활동) 신고서를 작성하여 총무원 총무부에 신고함.
- 2. 포살**
 - 포살참여 의무
 - 본 종 스님(‘예비승’을 포함한다)은 율장정신과 법령에 따라 안거 중에 결계신고를 한 교구본사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 각 교구본사 관할 공할의 주지는 반드시 소속 교구본사의 포살에 참여하여야 함.
 - 포살참여 예외
 - 가. 승남 30년 이상, 연령 60세 이상, 법계 종사급 이상의 스님(동시종축)
 - 나. 결계 기간 중 1월 이상 입원 중인 스님
- 3. 결계특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의 권리제한** (포살 및 결계에관한법, 계단법, 승가고시법, 법계법)
 - 시미·사미니는 비구·비구니계를 유지할 수 없다.
 - 각급 승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 법계를 품수 또는 승사할 수 없다.
- 4. 유의사항**
 - 결계신고는 접수기간 내에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 (시행령 별표1: 교구본사의 결계 및 포살 관할 구역 참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서식>은 종단 소속사찰 및 교구본사에 발송된 안내책자와 종단홈페이지(www.buddhism.or.kr) 및 각 교구본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소정양식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문의 02)2011-1710)

불기 2552(2008)년 10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지 관